

세계 언론들 “도쿄올림픽, ‘방사능 올림픽’ 우려”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호주 언론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이 가시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며, 지난주 도쿄에서는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지난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은 최근호에서 후쿠시마를 직접 방문해 취재한 과정을 전하며 “2011년의 핵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안전치인 0.23 μ Sv(마이크로시버트)를 웃도는 0.46 μ Sv를 기록했으며, 붕괴한 제 1원전 인근에서는 3.77 μ Sv를 나타냈다.

더 네이션은 “소니, 미쓰비시, 혼다 등 주요 일본 기업들은 아직도 후쿠시마 지역에 위치한 사육을 방지하고 있다.”면서 “이 사실만으로도 후쿠시마의 형국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후쿠시마 현지인인 마스미 코와타는 더 네이션에 “방사능 수치는 아직 매우 높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만(방사능)청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다수는 아직 대피 구역으로 분류됐지만 우리는 여기서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성화 봉

송을 시작, 야구 및 소프트볼 일부 경기도 후쿠시마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LA타임스도 최근 사설을 통해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를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비판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green)과 세탁(washing)의 합성어로, 실질적인 친환경 행보를 취하지 않음에도 이를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LA타임스는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내세우며 후쿠시마의 안전을 홍보하고 현지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방사능 피폭 한도도 1mSv(밀리시버트)에서 20mSv로 올려버렸다.”고 지적했다.

호주 라인네트워크의 시사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 Australia)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특집을 방영했다. 보도에 따르면 4,000명의 후쿠시마 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 명이 정상 수치의 30배를 기록했다.

핵 전문가인 헬렌 켈다콧 박사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수치가 낮아졌다고 안심시키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라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은 절대 막을 수 없고 끝나지 않을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축구선수협회, 손흥민 체력 과부하 우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가 세계 최상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선수 중 상당수가 지나친 경기 출전 횟수와 이동거리 탓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2일 ‘골닷컴’에 따르면 전 세계 프로 축구 선수의 노조 역할을 하는 FIFpro는 전날 공개된 ‘At the Limit’란 보고서를 통해 모든 선수들이 오프시즌에 최소 4주 휴식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FIFpro에 따르면 몇몇 선수들은 지나치게 빠빠한 일정 탓에 체력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FIFpro 보고서가 선수들의 체력 과부하를 우려하며 예로 든 선수 16명에 손흥민(27)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FIFpro 보고서에 따르면 손흥민은 12개월간 78경기에 출전했으며 이동거리 11만km를 소화했다.이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12개월간 출전한 78경기 중 56경기에 5일도 쉼 쉬지 못한 채 출전했다. 해당 기간 손흥민의 출전 횟수와 이동거리는 FIFpro 보고서가 조사한 16명 중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테오 반 세켈렌 FIFpro 사무총장은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휴식과 회복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는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이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그들이 이와 같은 일정 탓에 체력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학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최상위 무대 선수들의 건강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FIFpro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전 세계 구단을 대상으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최소 4주의 오프시즌, 5일 이내로 열리는 경기 일정의 최소화, 한 선수가 1년간 출전하는 경기수 제한, 프로 구단의 선수 인원 확대, 장거리 이동 시 휴식 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오승환, 귀국 ... KBO리그 복귀할 듯

지난 26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방출된 오승환(37)이 메이저리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해외 진출 6년 만이다.

오승환의 에이전트는 지난 29일 “오승환이 28일일 조 용히 귀국했다. 수술 전까지 차분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시즌 부진에 오른쪽 팔꿈치 수술까지 겹친 오승환은 지난 24일 콜로라도 로키스로부터 양도지명 조치됐고 이어 26일 공식 방출됐다. 오승환은 웨이버공시 마감일까지 빅리그 다른 구단의 영입 제안을 받지 못하면서 자유계약선수(FA)로 풀렸다. 자유의 몸이 된 오승환은 팔꿈치 수술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무적 신분인 오승환은 어떤 리그, 팀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프로야구(KBO)리그 복귀의 경우 현재 임의탈퇴 신분이라 친정팀 삼성 라이온즈와만 계약할 수 있다.

삼성엔 2013시즌이 끝난 후 ‘비 FA 자격’임에도 오승환의 NPB 한신 타이거스 진출을 허락, 그를 임의탈퇴 선수로 처리했다. 임의탈퇴 선수는 보유권을 지닌 원 소속팀의 동의 없이는 다른 구단과 계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2015년 해외 불법도박 사건으로 KBO에 72경기 출장정지를 받아 복귀 시 한동안은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오승환의 삼성 복귀가 성사된다면 팔꿈치 수술 재활로 출장 정지 징계를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승환은 지난겨울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만큼 KBO리그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오승환은 2005년 삼성에서 데뷔해 2013년까지 마무리투수로 뛰면서 KBO리그 개인 통산 최다인 277세이브를 거뒀다. 이후 일본과 미국에서 통산 399세이브까지 기록했다.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에 단 한 개만을 남겨둔 가운데 오승환이 삼성에서 대기록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www.suhl.com
info@suhl.com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I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